

국립중앙도서관의 출판시도서목록(CIP) 서지레코드의 평가*

Examining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Cataloging in Publication(CIP) Records

김 선 애 (Sun-Ae Kim)**

【초 록】

이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출판시도서목록(CIP)의 서지레코드를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목록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제공하는 최종 서지레코드와 비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동일한 자료에 대해 국립중앙도서관의 CIP 레코드와 OPAC 레코드의 비교분석을 통해 서지기술의 내용과 요소 등의 차원에서 서지기술상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레코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출판시도서목록센터에서 제공하는 출판예정자료 중 출판예정일이 2008년 11월 1일부터 12월 30일인 자료를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개별도서관에서 자체목록을 구축하기 위해 카피편목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CIP 레코드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 도서관들은 목록의 품질과 정확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반드시 CIP 레코드에 대해 검증과 변경 및 조정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키워드】

출판시도서목록, CIP, 목록, 온라인 목록, 목록평가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compare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NLK)'s cataloging in publication(CIP) records with their permanent records in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NLK)'s online public access catalogue(OPAC) database. This study compares the description of records in the NLK CIP versus NLK OPAC in terms of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bibliographic elements for each record. The study selected the NLK's CIP

records from November to December 2008, allowing to publish the registered CIP titles and also the NLK to make the records available in their OPAC database. The finding indicate that libraries that use NLK's CIP records in their copy cataloging activity should not rely 100 per cent on the records. Verifications and modifications need to be carried out to ensure accuracy and quality of their catalogue records.

【Keywords】

Cataloging in Publication, CIP, Cataloging, Online cataloging, OPAC, Examining of cataloging

1. 서 론

전통적으로 목록은 특정도서관의 장서와 결부된 한정된 이용자를 위하여 작성되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용되어 왔다. 따라서 목록의 작성도 각 도서관 스스로가 외부기관의 도움 없이 수행하는 이른바 자체편목(original cataloging)이 그 주류를 이루어왔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출판물의 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자료 및 서지레코드가 생산자로부터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게 되고, 더 효과적이고 편리한 도서관봉사를 요구하게 되면서, 전통적인 목록업무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 다시 말해, 자급자족을 위한 목록정보가 직접이용자 이외의 사람들에게도 유통되어 이용이 가능해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널리

* 이 연구는 2009학년도 경성대학교 학술연구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kimsa@ks.ac.kr)

유통시킬 것을 목적으로 목록이 작성되는 형태로까지 발전하게 되었고, 나아가서는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기관들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많은 도서관들은 그들의 업무 중 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업무과정중의 하나를 편목업무라고 여겼다. 도서관은 자료를 구입하고 서지레코드를 작성하는데 많은 재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서가에서 또는 목록에서 도서관의 중요한 재원을 사용하여 구입한 최종결과물을 찾을 수 없다면 결과적으로 귀중한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정확한 또는 불일치의 목록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원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찾을 때까지 검색을 되풀이하게 한다면 이 또한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랑가라단(Ranganathan)이 말하는 도서관학 5법칙 중 제4법칙 '독자의 시간을 절약하라(Save the time of the reader)'는 중요한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최소한의 오류라 할지라도 이용자들이 하여금 서지레코드의 품질을 의심하게 하는 것은 도서관 서비스 전반에 대해 나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서지레코드 작성에는 정확성과 일관성이 요구된다.

최근 정보의 폭발적 증가와 정보의 범람으로 인해 과생된 현상은 불가피하게 편목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단순히 생각하여도 자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료의 조직화는 더 필요하게 되는 것처럼 편목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었다. 그러나 도서관에서 전통적으로 해왔던 자체편목(original cataloging) 방법은 자료를 일관되고 표준적으로 편목할 수 있는 숙련된 전문사서가 요구되는 작업이다. 편목작업은 다양한 목록규칙을 이해하고 일관된 방법을 적용하여 자료를 조직화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받은 능력 있는 사람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따라서 편목작업활동 및 과정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이 들뿐만 아니라 숙련된 전문가들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고도의 지식, 경험, 판단력 등이 필요한 지적 작업이다.

자료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도서관계는 엄청난 편목업무량을 처리해야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의 해결방안으로 카피편목(copy cataloging)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정보기술의 발달에 의해 가능해진 방법으로, 만약 다른 도서관의 서지레코드를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실현시킨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카피편목은 자체편목(original cataloging)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시작되었으며 카피편목의 등장은 도서관사서들의 업무를 경감시켜주었으며,

특히 편목담당자들을 과중한 업무에서 일정부분 벗어나게 해줬다. 이제 카피편목은 세계 모든 도서관에서 편리하게 사용하는 주요한 편목방식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카피편목이란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편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국가대표도서관(national library)이나 서지 유틸리티(bibliographic utility) 등 다른 기관에서 작성한 목록정보를 이용하여 목록을 재편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은 목록정보의 공동이용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어느 특정기관에서 목록레코드를 작성하여 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중앙집중식편목(centralized cataloging)이며, 다른 하나는 둘 이상의 기관에서 목록레코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이를 상호간에 공동으로 이용하게 되는 협동편목(cooperative cataloging) 또는 분담편목(shared cataloging)이다(오동근 2001). 이러한 방법은 모두 개개의 도서관마다 별도로 자체편목을 하는 것보다 목록작성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경비면에서 경제적이고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목록이용자들에게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현재 도서관에서는 다양한 기술과 방법을 사용하여 카피편목을 실행하고 있다. 서지레코드들은 서지유틸리티 공급자 또는 제공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정보원에서 복사되고 다운로드(download)되고 그리고 업로드(upload)되고 있다. BiblioFile처럼 상업회사의 생산품에서 다양한 도서관의 온라인열람목록들(OPACs) 그리고 출판시 도서목록인 CIP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카피편목을 위한 서지레코드들의 정보원은 다양하다.

이 중 CIP는 'Cataloging In Publication'의 두문자로 우리말로 '출판시도서목록'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레코드는 특정 국가에서 자국에서 출판되는 국가문헌을 대상으로 자료가 출판되기 전에 사전 서지레코드 작성을 위해 출판사로부터 교정쇄와 출판예정도서의 구체적인 정보를 담은 데이터시트를 받아 국가의 권위 있는 대표적인 목록담당부서에 의해 작성되는 서지데이터이다. 국가도서관에서 작성된 CIP는 책이 출간될 때 표제지 이면 등 일정한 위치에 인쇄된다. CIP 레코드의 카피편목은 특히 전문적인 편목담당자가 없는 도서관 또는 소규모 도서관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편목도구이다. 목록작성에 거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면서, 시간과 노력, 경비 면에서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도구이다.

개별도서관에서는 자체 편목을 도와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CIP 레코드의 카피편목을 고려할 수 있다. 도서관입장에서는 서지데이터에 대한 신뢰만 가능하다면 당연히 영구적인 자체 레코드를 생산하는 편목 방법으로 이 수단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CIP 레코드는 국가서지작성기관에 의해 작성될 뿐만 아니라, 편목업무를 간단하고 신속하게 수행하도록 해줌과 동시에 비용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열람목록에서 제공되는 레코드와 국립중앙도서관의 출판시도서목록센터에서 작성하여 제공하는 CIP 레코드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비교하고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CIP 레코드가 유용성을 확보하려면 자료가 발간된 후에도 서지사항의 변경이나 수정이 거의 없어야 하고, 제공되는 서지 데이터는 정확하고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는 CIP 레코드가 개별 도서관에서 자체편목을 생산하는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CIP 레코드의 특성과 개별 도서관의 편목과정에서의 유용성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CIP 레코드의 유용성 측면에서 최종 결과물로 제시되는 OPAC의 MARC 레코드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영역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발생하는지를 알아보고 그 차이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범위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출판시도서목록센터에 의해 작성된 CIP 레코드 서지기술의 일관성, 정확성, 상세성 및 목록규칙과 표준의 적용성 등의 분석을 통해 목록품질을 평가하기 보다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목록을 통해 제공되는 완성된 MARC레코드와의 비교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국립중앙도서관의 출판시도서목록센터에 의해 작성된 CIP 레코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열람목록에서 제공되는 MARC 레코드와 비교했을 때 정확하고 일관성이 있는가가 이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가설이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이론적 배경

역사적으로 CIP 프로그램은 미국의회도서관(Library Congress)이 1971년에 처음 도입하였으며, 미국시스템

과 매우 흡사한 영국의 CIP 프로그램은 1977년에 도입·운영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출판물이 출판되기 전에 신간자료에 대한 서지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IFLA에서 2004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CI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나 계획 중에 있는 국가는 29개국이다(Cello and Wiggins 2004). 미국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운영방식은 국가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중앙집중식시스템인 반면 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9개국에 불과했다. 영국은 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CIP 데이터가 British National Bibliography와 서지정보를 제공하는 전문회사인 BLAISE_LINE에 의해 작성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출판시도서목록센터에서 국내에서 발간되는 모든 자료에 대한 CIP 레코드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2002년 7월에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국내의 CIP 프로그램은 현재 7년 남짓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미국을 비롯하여 호주, 브라질, 캐나다, 영국 등이 이미 1970년대에 CIP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에 비하면 늦게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출판시도서목록센터에서는 출판사로 하여금 발간할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여 자료가 출간되기 전에 발간예정자료에 대한 서지데이터를 출판사에 제공하여, CIP 레코드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이러한 서비스는 국가서지작성 및 서지통정활동의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도서관법』에 따르면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의 자료의 수집, 제공, 보존관리에 대한 임무뿐만 아니라 국가서지작성 및 표준화 그리고 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CIP 레코드는 출판사가 자료의 출판이전에 CIP 작성에 필요한 정보, 즉 표지, 표제지 혹은 판권지, 서문 혹은 목차, 요약/초록 혹은 본문의 처음 10페이지 그리고 저자관련정보나 출판사 보도자료 등을 국립중앙도서관의 출판시도서목록센터에 송부하면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다. CIP는 출판사에서 신청한 일시를 기준으로 최장 5일 이내에 제공되며, 작성이 완료되면 출판사가 지정한 CIP 신청자의 전자우편으로 CIP 전송매세지와 함께 첨부파일로 데이터가 전송된다. 이렇게 작성된 CIP 데이터는 e-CIP 홈페이지를 통하여 출판예정일이 6개월 경과할 때까지 서비스하고 있으며, CIP가 부여된 도서는 주제별, 출판예정일, 서명 그리고 저자명 등

의 다양한 항목으로의 검색이 가능하다. CIP 데이터는 저자명, 단체명, 통일표제 등을 포함한 표목과 표제, 주 기사항, 총서표제, ISBN, 분류기호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CIP레코드의 효용성을 출판사, 도서관 및 이용자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국립중앙도서관 2003).

- 출판사 입장:
 - 출간자료의 사전홍보가 가능
 - 전자상거래의 기반이 되는 출판유통 시스템과의 연계로 도서 판매증대에 기여
 - POS데이터의 활용으로 출판유통현대화에 기여
- 도서관 입장:
 - 자료정리 소요시간 및 비용 절감
 - 표준목록데이터의 활용으로 개별도서관의 목록의 질 향상
 - 자료입수와 제공 소요시간 단축
- 이용자 입장:
 -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신간도서에 대한 접근이 가능
 -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들이는 시간과 비용 절감

이처럼 CIP 데이터는 출판사, 도서관계, 이용자 등 다양한 이용자집단에 의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되풀이하여 말하자면, 출판사 입장에서는 자료에 대한 사전 홍보가 가능하여 도서관매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도서관 측에서는 자료입수와 제공소요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자료정리 소요시간 및 비용절감 및 표준목록데이터의 활용으로 개별도서관의 목록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6년에 미국의회도서관(LC)에서 CIP 관련기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기관의 78%가 자료가 출간되기 전에 CIP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CIP가 개별도서관에서 자료수집 및 자료편목과정에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CIP 데이터의 유용성을 감안한다면 CIP 데이터의 정확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CIP 데이터는 최종적인 목록데이터는 아니므로 최종적인 출판물과 CIP 데이터간의 불일치, 즉 CIP 데이터의 정확성과 일관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출판사에서 CIP 레코드를 요청할 때 국립중앙도서관에 출판물의 완전한 내용을 송부하지 않기 때문에 목록작성이 부분적인 정보에 의존하여 수행될 수밖에 없는 환경

이 그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 결과 CIP 레코드는 실물자료와 대조했을 때, 특히 표제사항, 책임사항, 출판사항, 분류번호 등의 서지사항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의 CIP 레코드와 실제 자료가 출간된 뒤에 작성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완성된 MARC 레코드와의 비교를 시도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CIP 레코드가 개별도서관의 편목 정보원으로서 믿어도 되는 혹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인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2 선행연구

편목이란 목록을 작성하는 과정으로서, 광의로는 분류를 비롯하여 목록작성에 관련된 모든 절차를 말하며, 협의로는 단순히 목록작성만을 말한다(문헌정보학용어사전, 1996). 즉 편목이란 도서, 연속간행물, 회의자료 혹은 다른 형태의 자료들이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다른 자료들과 구별될 수 있도록 이들 자료를 구성하고 있는 특히 표제, 책임사항, 연속간행물과 같은 다른 형태 자료들의 물리적인 사항, 출판사항, 형태사항 등을 기술하는 과정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생산된 개별자료에 대한 결과물이 서지레코드이며, 이는 도서관 장서에 접근하는 도구로 이용된다. Noryati(1994)는 서지레코드가 앞에서 설명한 목록으로서의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질적인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Noryati가 제시하는 목록레코드의 질적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특히 접근점의 오류가 없어야 한다. 왜냐하면 철자 오류의 발생은 이용자들이 특정자료에 대한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 영미목록규칙제2판(AACR2), LC주제명표목표 혹은 다른 표준화된 분류시스템과 같은 국가적으로 인정된 목록규칙과 표준을 충실히 적용하여야 한다.
- 목록에서 서지정보, 저자정보 및 소장정보의 현행성과 정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목록의 유지보수를 강화해야 한다.
- 전자통제와 전자파일의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편목작업에서 목록레코드에 표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접근점 구축과 관련하여 그리고 서지사항의 기술수준과 관련하여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매우 중요하다.

Ryans(1978)은 켄트주립대학(Kent State University)의 온라인열람목록에서 700개의 서지레코드를 추출하여 서지기술사항을 검토하였다. 추출된 레코드들은 영미목록규칙 제1판을 기준으로 9개의 서지기술영역이 비교·검토되었는데, 그 중 검토된 레코드의 40%가 AACR의 규칙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단지 1개의 오류만을 포함하고 있는 레코드가 전체의 56%에 불과했다. Intner(1989)는 OCLC와 RLIN(Research Libraries Information Network)의 두 시스템으로부터 추출한 서지레코드들의 품질을 비교·평가하였다. 두 유형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레코드를 비교한 결과, 두 기관의 목록에서 오류비율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서지기술의 상세성 혹은 풍부함과는 무관하게, 품질측면에서의 오류유형을 대별하면, AACR2의 위반 및 몰이해, LC 규칙의 위반 및 이해부족, MARC 형태에 대한 이해부족, 철자의 오류, 구두점 및 대문자 사용의 오류 등으로 나타났다. Intner(1989)의 연구에서는 평균적으로 한 레코드당 2.5개의 오류가 발견되었으며, 대부분의 오류유형은 AACR2와 LC 규칙의 위반이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도서관에서의 편목작업은, 특히 자체편목을 할 경우, 고비용이 발생하는 업무과정이다. 편목은 숙련된 편목담당자가 특별히 요구될 뿐만 아니라 시간과 인적자원이 집약적으로 요구되는 활동이다. 카피편목은 편목과정의 능률을 보다 촉진시킬 수 있으며, 적체된 자료의 편목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방안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추세이다. 카피편목이 주목받는 이유는 편목업무의 양을 경감시킬 수 있는 해결방법이며 또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Rider(1996)는 사서들과 도서관관리자들이 도서관 및 정보자원센터에 불어 닥친 예산삭감과 인력감축에 대비하여 편목생산성의 고능률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편목담당사서들의 노력의 결과로 편목 안 된 자료의 양은 점점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대규모 도서관에서는 자료에 대한 자체 목록레코드가 축적되고 있다. Jenda(1992)와 Chandra(1989)는 자체편목과 카피편목의 소요시간에 대해 연구하였다. Jenda(1992)의 연구에 의하면, 책 한권을 카피편목을 이용하여 서지레코드를 작성할 경우 총소요시간

이 10.7분인 반면 자체편목을 이용하여 서지레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을 사용할 경우 총소요시간이 19.1분이 걸렸다고 한다. Chandra(1989)의 연구는 한 개의 서지레코드를 자체적으로 편목할 경우 평균시간이 28.8분이 소요된 반면 OCLC로부터 카피편목을 했을 경우 평균 소요시간이 15.2분이 걸렸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들 연구의 결과들은 편목작업을 위해 카피편목을 이용할 경우 자체편목을 하는 것보다 약 두 배의 효율성을 낼 수 있는 편목과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카피편목이 편목과정에서 효율적이고 유용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AACR2, 혹은 한국목록규칙과 같은 표준화된 목록규칙의 일관된 적용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편목자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요소가 무엇이며, 도서관에서 편목작업을 할 때 반드시 필요로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와 합의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카피편목의 주된 정보원인 대규모 도서관이나 혹은 서지유틸리티공급자들이 표준화된 목록규칙들을 수용하여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편목의 정확성과 전반적인 품질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우수한 목록 또는 적어도 우수한 서지 레코드를 만드는 것은 활용 가능한 우수한 정보원의 확보에 달려있다. Poll과 Boehorst(1990)는 도서관이 지향해야 할 목적을 이용자의 만족이란 차원에서 논의하면서 도서관의 품질은 도서관 목적과의 합치성의 정도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목록의 품질은 반드시 상세하게 기술되어야 한다거나 혹은 한 치의 오류도 없이 완벽하고 정확해야 한다거나 할 필요는 없을지라도 목록은 포괄적이고, 최신성이 있고, 유용하여 이용자의 필요를 만족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Graham(1996)은 서지레코드에 기술된 서지사항을 대상으로 서지기술상의 정확성(정확한 묘사 및 서지기술방법)과 지적작업이 요구되는 정확성(적절한 서지기술, 접근점 및 분류번호)을 구분하여 정확도와 상세기술의 상대적 중요성을 탐구하였다. Thomas(1996)는 목록의 품질을 정확성뿐만 아니라 일관성, 서지기술의 수준, 타당성(적절성), 적시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서지의 완벽한 기술이 최고의 품질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로 인해 이용자가 탐색에서 부분적인 성공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면, 도서관 목록은 표준의 철저한 준수와 정확성, 상세한 수준의 서지기술 모두가 중요하다. 따라서 도서관들은 소장자료목록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다.

CIP 프로그램은 개별도서관에 초안 레코드를 제공함으로써 카피목록을 쉽게 만들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발행인이 불완전한 정보를 제출하거나 혹은 목록과 실제 출판물사이에서 세부사항이 변경되면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Seal & Overton(1984)은 British Library의 CIP 레코드와 보급레코드의 차이점을 조사하였는데, 분석대상 레코드 562중 단지 3개의 레코드만이 변경이 없었다. 그중 가장 빈번하게 변경된 데이터는 분류번호, 출판일 그리고 표목의 형태였다. Taylor & Simpson(1986)은 LC의 CIP 레코드와 LC의 오리지널 레코드의 정확성을 비교하였다. 저자들은 레코드의 변화를 보다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두 정보원의 카피편목을 이용하여 본인들의 도서관에서 생성한 레코드들을 연구대상으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는 CIP 레코드의 49.7%와 오리지널 LC 레코드의 57.8%만이 정확한 목록데이터를 갖고 있음을 보여줬다. Dowell(1979)은 연구에서 CIP 프로그램에 의해 제공되었던 서지정보가 최종 LC 목록에서 변경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표제의 경우는 68%가 변경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Leung(1984) 또한 CIP MARC과 LC MARC의 변화 및 불일치에 대해 비교·분석하였다.

Manaf와 Rahman(2006)은 말레이시아 국립도서관에서 작성한 CIP 레코드와 국립중앙도서관의 OPAC 레코드간의 변화를 비교·조사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레코드는 140개였으며, 분석결과가 주는 의미는 CIP 레코드에서 제공하는 서지기술사항을 전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변화가 발생한 서지기술요소를 보면, 표제의 변화 17%, 출판일자 변화 13%, 표목의 형태의 변화 12%, 출판지의 변화 11%, 출판사의 변화 8%, 분류번호 변화 8%, 주제명의 변화 6%,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표목의 변화가 5%로 나타났다.

지금의 편목업무가 예전에 비해 보다 빠른 시간에 완성될 수 있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개별도서관에서는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카피편목의 정보원이 있다. 그러나 목록레코드의 신뢰성과 권위성 차원에서의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도서관은 그들의 소장목록레코드가 모든 목록 표준을 준수한 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게 하려면 우수한 목록정보원을 선택해야만 한다. 자료의 검색, 탐색, 저장 및 정보의 공유가 올바르게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편목과정에서 표준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3. 국립중앙도서관의 CIP 레코드와 OPAC 레코드의 비교·평가

3.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출판시도서목록(CIP) 레코드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였다. 내용분석방법이란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센터에서 구축하고 있는 발간예정자료 목록에서 선택된 신간 도서에 관한 CIP 레코드들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최종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목록상의 MARC 레코드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관찰하고,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평가대상 레코드를 확보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의 출판시도서목록센터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출판예정일이 11월 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 해당하는 자료를 모두 검색하였다. 검색결과 51건의 자료가 검색되었다. 검색된 자료는 도서이며, 다른 형태의 자료, 즉 CIP 레코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자료인 연속간행물, 테이프, DVD 등의 자료는 평가에 포함되지 않았다. 51개의 평가대상 CIP 레코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목록을 통해 제공하는 서지레코드와의 비교를 위해, 2009년 1월 28부터 2월 4일에 걸쳐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목록을 통해 동일한 서지레코드의 완성된 형태를 검색하였다. 검색결과 51개의 레코드 중 50개의 레코드를 확보하였으며, 한 개의 레코드는 찾을 수가 없어 검색대상에서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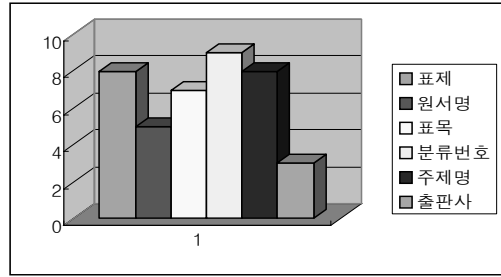
본 연구는 각각의 레코드를 위해 서지기술요소에서 CIP 레코드와 OPAC 레코드의 서지기술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서지기술요소로는 표목, 본표제, 책임표시사항, 출판사항, 발행지(출판장소, 출판사, 출판년도), 주제명 그리고 분류번호 등을 비교·평가하였다. 두 유형의 서지레코드를 평가함에 있어, 두 곳 모두에 사용된 동일한 필드의 유사성과 차이만을 비교하였다. 따라서 CIP 레코드에 없는 필드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며, 비록 동일한 역할을 하는 필드라 할지라도 필드명이 다를 경우에는 이를 비교·평가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CIP 레코드는 주제명을 650(주제명 부출표목-일반주제명) 필드를 사용하여 기술하였는데, OPAC 레코드는 653(비통계주제명) 필드를 사용하여 주제명을 기술하고 있을 경우, 이 두 필드를 비교·평가하지 않았다.

3.2 CIP 레코드와 OPAC 레코드의 서지사항 비교 분석결과

확보된 CIP 레코드를 대상으로 서지기술영역별로 국립중앙도서관의 OPAC 레코드와 비교하여 유사성과 차이 분석을 통해 서지기술상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CIP 레코드와 OPAC 레코드간 서지기술내용의 차이는 모두 27개의 레코드에서 40건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전체 레코드의 54%에 해당하는 레코드에서 서지기술상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10개의 레코드 중 적어도 5개 이상의 레코드에서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만약 CIP 레코드가 10개 있다면, 최종 OPAC 레코드와 서지기술내용을 비교했을 때, 적어도 5개 이상의 레코드에서 8건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CIP 레코드와 OPAC 레코드간 서지기술내용의 차이가 발생한 영역을 살펴보면, KDC 분류번호, 표제, 표목, 원서명, 주제명, 출판사 기술영역이었다. 영역별로 서지기술상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KDC 분류번호 영역에서의 변화가 9건 발견되었으며, 이는 전체 레코드의 18%에 해당한다. 표제와 주제명 영역에서 CIP 레코드와 OPAC 레코드 간의 차이가 발견된 레코드는 각각 8건으로 전체 레코드의 16%에 해당한다. 표목을 기술함에 있어 차이가 있었던 레코드는 7건이었으며, 원서명을 기술함에 있어 차이가 있었던 레코드는 5건으로, 전체 레코드 대비 각각 14%와 10%에 해당한다. 그리고 출판사를 기술함에 있어 차이가 발견된 레코드는 3건으로 6%에 해당된다.



〈그림 1〉 CIP 레코드 대비 OPAC 레코드의 서지기술 변화

3.3 서지기술 영역별 비교·분석

CIP 레코드와 OPAC 레코드간 서지기술내용 중 표제 부분의 차이는 대부분의 경우 관제의 기술여부 혹은 표제관련정보의 기술여부에 관련된 변화였다(표 1 참조). 4개(4번, 12번, 14번, 41번)의 레코드에서는 CIP 서지레코드에는 기술되지 않았던 표제관련정보가 기술된 경우였고, 3개(9번, 25번, 49번)의 레코드는 본표제 혹은 표제관련정보로 기술된 내용이 OPAC 서지레코드에서는 관제로 기술된 경우였다. 나머지 하나는 표제관련정보가 변경됨으로 인해 발생한 차이로 생각된다.

표제사항의 변화와 더불어 원서명의 기술변화를 살펴 보았다. 원서명 기술은 번역서일 경우에만 해당하는 서지기술 영역인데, 본 연구에서 발생한 CIP 레코드와 OPAC 레코드간의 변화는 대부분이 원서명을 기술함에 있어 관사의 기술여부에 기인한다(표 2 참조). 모두 5개의 레코드에서 차이가 발생되었는데, 그 중 3개의 레코드에서 관사채택에 관련된 기술상의 문제였다. 문제는 관사채택의 사례가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목록

〈표 1〉 표제사항 기술의 변화

No.	CIP 레코드	OPAC 레코드
4	이노베이션 컨버전스	이노베이션 컨버전스: 고객만족경영·6시그마경영·지식경영을 하나로
9	오바마 아저씨의 꿈의 힘: 읽고 나면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책	(오바마 아저씨의) 꿈의 힘
12	매드 사이언스 북	매드 사이언스 북: 엉뚱하고 기발한 과학실험 111
13	한 번에 한 걸음씩 희망을 선택하라: 상처로부터 삶을 일으켜 세우는 10가지 심리치유	한 번에 한 걸음씩 희망을 선택하라 : 상처 입은 삶을 일으켜 세우는 101가지 심리치유
14	사막	사막 : 르 클레지오 장편소설
25	과학카페: KBS 과학다큐멘터리	(KBS 과학다큐멘터리) 과학카페
41	바람을 만드는 소년	바람을 만드는 소년 : 바람개비가 전하는 치유의 메시지
49	몰입천재 클레멘타인	(몰입 천재) 클레멘타인

〈표 2〉 원서명 기술의 변화

No.	CIP 레코드	OPAC 레코드
12	Das Buch der verrückten Experimente	Buch der verrückten Experimente
14	École	L'ecole
26	The cartoon, communication to the quick	Cartoon : communication to the quick
37	-	みんなにげた
40	モノのかたち	モノのカタチ: 20世紀デジ イン進化論

〈표 3〉 표목 기술의 변화

No.	CIP 레코드	OPAC 레코드
12	Scheider, Reto U.	Schneider, Reto U.
13	Smallwood, Bev	Smallwood, Beverly
14	르 클레지오 장 마리 귀스타브 Le Clézio, Jean-Marie Gustave	클레지오, 장 마리 구스타브 르 Clézio, Jean-Marie Gustave Le
15	골드스미스, 마이크	골드스미스, 마이클
26	해리슨, 랜달 P	해리슨 랜달 P.
39	울프, 버지니아	울프, 버지니아 스티븐
47	클리코프림, 보리스	클리코프, 보리스

규칙과 무관하게 무원칙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두 개(12번, 26번)의 레코드에서는 CIP 레코드에서 관사를 채택하여 기술한 반면, 나머지 다른(14번) 레코드에서는 OPAC 레코드에서 관사를 채택하여 기술하고 있다. 다른 사례는 번역서임에도 불구하고 원서명이 기술되지 않은 경우와 원서명을 기술함에 있어 철자상의 오류로 인한 차이였다. 철자상의 오류는 Noryati가 말하는 목록의 품질 요소중 '접근점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를 위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표목기술과 관련하여 변화가 있었던 레코드는 7건이었으며, 이는 표목기술상의 차이만을 말하며, 표목의 형태 즉, 기본표목채택여부는 평가대상이 아니었다. 표목 기술에 있어 차이가 발생한 레코드는 모두 번역서에 해당하는 레코드로, 철자상의 오류 및 외국인명의 기술상의 문제가 원인이었다(표 3 참조). 15번 레코드와 26번 레코드의 경우는 외국인명을 한글로 기술하면서 나타난 문제로 볼 수 있으며, 12번 레코드와 47번 레코드는 철자상의 오류로 그리고 13번 레코드와 39번 레코드는 저자명의 완전한 표기로 인해 발생한 차이로 판단되어진다. 반면, 심각한 오류로 지적될 수 있는 레코드는 14번 레코드로 CIP 레코드와 OPAC 레코드간 저자명 채택에 있어 해석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이다.

MARC 레코드에서 분류번호를 기술하는 필드는 여러 개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CIP 레코드와 OPAC 레코

드간에 KDC 분류번호의 변화만을 분석하였다. KDC 분류번호가 변화한 경우는 모두 9건이었으며, 차이의 발생은 주제의 보다 세분전개로 인한 세목의 변경이 가장 많았지만 대주제가 변경된 경우도 있었다(표 4 참조). 28번 레코드와 49번 레코드는 주제의 세분전개로 인해 차이가 발생한 반면, 9번, 32번 그리고 33번 레코드의 경우는 주제의 변경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하였다. 32번 레코드와 33번 레코드의 경우는 중분류 이하에서 주제의 변화가 있지만, 9번 레코드의 경우는 대분류의 이동으로 인한 변화로 중대한 변화이다. 이러한 분류기호의 변화는 CIP 레코드 제작을 위해 출판사에서 제출하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인해 발생하는 주제 분석과정에서의 오류에서 파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표 4〉 분류번호(KDC) 기술의 변화

No.	CIP 레코드	OPAC 레코드
9	340.99	998.34
21	370.13	370.8
25	510	500
28	813.8	813.808
31	517.32 / 517.372	510 / 517
32	517.372 / 375.1	510.8
33	183.2 / 517.372	510 / 517
46	813.6	594 / 813.6
49	843	843.8

주제분석과정에서의 오류는 분류번호 뿐만 아니라 주제명 부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분석에 사용된 CIP 레코드와 OPAC 레코드 사이에 주제명과 관련하여 서지기술내용의 변화는 8건이 발생하였다(표 5 참조). CIP 레코드에서 제시한 주제명이 OPAC 레코드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됨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한 레코드는 10번, 38번, 39번, 40번 그리고 48번인 반면, 4번, 21번 그리고 25번 레코드의 경우는 자료의 주제가 변경됨으로 인해 나타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표 5〉 주제명 기술의 변화

No.	CIP 레코드	OPAC 레코드
4	경영정책[經營政策], 6시그마	경영전략[經營戰略]
10	사진집[寫真集]	사진집[寫真集]
21	교육사회학[教育社會學]	교육이론[教育理論]
25	인체[人體], 건강[健康]	기술과학[技術科學]
38	결혼[結婚]	결혼상담[結婚常談]
39	영미소설[英美小說]	영국소설[英國小說]
40	디자인	산업디자인, 공업디자인
48	영미소설[英美小說]	미국현대소설 [美國現代小說]

CIP 레코드와 OPAC 레코드 사이에 출판사항의 변화는 거의 없었으며, 다만 출판사를 기술함에 있어 3건의 변화가 있었다. 3건 중 1건은 기술상의 오류로 볼 수 있는 한편, 두 건의 레코드는 철자상의 혹은 기술상의 오류라기보다는 CIP 레코드 제작을 위해 출판사에서 제출한 내용과 실제 출판물 사이의 출판사명의 기술상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6〉 출판사 기술 변화 사례

No.	CIP 레코드	OPAC 레코드
15	korea.com	코리아닷컴
16	korea.com	코리아닷컴
27	사계절출판사	사계절

4. 결론

국내에 CIP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7년이 되어간다. 출판사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성과를 좌우하는 키워드이지만 여전히

출판사들의 참여현황은 저조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서지데이터의 정확성과 일관성 차원에서 CIP 레코드를 점검해보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CIP 프로그램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국내의 대부분의 도서관이 편목 업무를 아웃소싱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피 편목을 위한 믿을 수 있는 정보원 확보차원에서 CIP 데이터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효율성이라는 명목 하에 너도나도 아웃소싱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야기된 목록품질저하에 대해서는 일선 도서관에 근무하는 편목담당자는 입을 닫고 있다. 아웃소싱으로 인해 목록의 품질이 아무리 조악해져도 인력감축과 비용절감이라는 현실 속에서 이들은 자체편목을 할 수도, 하자고 나설 수도 없는 상황이다. 목록의 품질을 제고시키는 방안으로 카피편목이 대안일수 있지만 믿을 수 있는 정보원확보와 쉽고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론이 문제가 된다.

본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출판시도서목록센터에서 제공하는 CIP 서지데이터와 발간 후 제공되는 국립중앙도서관 OPAC MARC 데이터와의 차이점 혹은 불일치를 분석하였다. 물론 CIP 레코드는 실물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데이터가 아닌 만큼 실물자료와의 대조를 통한 데이터의 검증과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데이터는 변경될 수 있다. 또한 CIP센터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실제 자료가 출판된 뒤에 작성되는 OPAC MARC 데이터에 비해 불충분하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개별도서관에서 편목업무에 CIP 레코드를 활용할 경우 자료정리 소요시간 및 비용절감의 효과와 더불어 표준목록데이터의 활용으로 목록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비록 CIP 레코드가 최종적인 목록데이터는 아닐지라도, 개별도서관에서 편목업무에 유용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정확성과 서지기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하며, 최종적인 출판물과의 불일치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 유용성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작성한 CIP 레코드와 자료가 출간된 후에 작성된 국립중앙도서관의 OPAC MARC레코드의 비교결과는 CIP 레코드를 완전하게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분석대상 레코드의 절반 이상의 레코드에서 변화가 발생했으며, 전체 변화건수는 전체 레코드 대비 80%에 해당한다. 중요한 것은 자료선정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의 주제영역(분류번호, 주제명)기술부분의 변화가 17건으로 전체 변화의 42.5%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원서명 기술

을 포함한 표제사항기술의 변화도 13건으로 32.5%에 해당한다. 이처럼 서지내용기술에 있어 주요영역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두 유형의 MARC 레코드 중요영역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짐작컨대, CIP 레코드 제작을 위해 출판사에서 제출하는 자료의 부실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변화가 표제관련사항과 자료의 주제와 관련된 사항임을 감안할 때, 이는 편목상의 오류라기보다는, 주제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부족 혹은 최종출판물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CIP 레코드 제작을 위해 출판사에서 제출하는 자료와 출판사의 최종 생산물과의 사이가 변화가 많음을 알 수 있다. CIP 레코드가 OPAC 레코드에 비해 서지기술내용이 상세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표제관련 내용이나 표목 기술상의 변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작성한 CIP 레코드와 자료가 출간된 후에 작성된 OPAC MARC레코드의 서지기술내용의 비교분석을 통해 CIP 레코드의 유용성을 판단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이 두 유형의 레코드간 서지기술영역에서의 잦은 변화는 CIP 데이터의 불확실성 혹은 유용성에 의심을 갖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데이터의 정확성과 일관성 유지가 서지정보유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는 비교·분석을 위해 사용한 레코드의 수가 적다는 것과 출판사에서 제출한 CIP 작성용데이터시트는 물론 최종 출판된 자료의 기본정보원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하게 CIP 레코드와 OPAC MARC 레코드를 비교하였다는 것이다. 향후과제로는 비교분석을 통한 차이 분석보다는 목록의 품질평가를 위한 정확성, 일관성, 포괄성, 완전성 그리고 목록규칙 및 표준의 적용 등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 국립중앙도서관. 2003. 『출판시도서목록(CIP) 편람』. 개정판.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김영귀, 박정혜. 2005. 목록업무에 있어서 CIP 제도의 적용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논문집(인문·사회과학대학편)』, 55: 97-122.
- 오동근, 여지숙. 2001. 한국형 CIP 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5(2): 21-47.
- 윤정옥. 2005. 서지 유틸리티와 CIP 데이터 활용에 관한 연구: OCLC와 미국국회도서관 CIP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2): 349-367.
- 조은주. 1997. CIP의 시행에 관한 고찰. 『행간 운영대박사 화갑기념논문집』: 517-535.
- 한국도서관협회. 1996. 『문헌정보학 용어사전』.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Cello, J. and Wiggins, B. 2004. Survey of National CIP Programs: Results and Analysis, Proceedings of Library of Congress for the 70th the IFLA 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Buenos Aires, Argentina.
- Chandra, P. G. 1989. Cataloging time and work flow. *OCLC Newsletter*, 182(November/December): 10-13.
- Chapman, A. and Massey, O. 2002. A catalogue quality audit tool. *Library Management*, 23(6/7): 314-324.
- Dowell, A. T. 1979. Discrepancies in CIP: how serious is the problem? *Library Journal*, 104(4): 2281-2287.
- Graham, P. S. 1990. Quality in cataloging: making distinctions.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16(4): 213-218.
- Intner, S. S. 1989. Much ado about nothing: OCLC and RLIN cataloging quality. *Library Journal*, 114(2): 38-40.
- Jenda, C. A. 1992. Time and workflow study of the cataloging process used to evaluate Library of Congress cardset as a cataloging support service.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36(4): 426-440.
- Leung, S. W. 1983. MARC CIP records and MARC LC records: An Evaluative Study of Their Discrepancies.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4(2): 27-39.
- Manaf, Z. A. and Rahman, R. A. (2006). Examining the quality of National Library of Malaysia (NLM) cataloguing in publication(CIP) records.

- Library Review*, 55(6): 363-373.
- Noryati, A. S. 1994. Quality cataloging: to improve user access. Proceedings of the 1994 Joint PPM/LAS Congress: Towards Achieving High Performance Libraries, Vision for Future, USM and PPM, Penang.
- Poll R. and Boekhrost, P. 1996. Measuring Quality: International Guidelines for Performance Measurement in Academic Libraries, KG Saur: Munchen.
- Rider, M. M. 1996. Developing new roles for paraprofessional in cataloging.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22(1): 26-32.
- Ryans, C. C. 1978. A study of errors found in non-MARC cataloging in machine-assisted system. *Journal of Library Automation*, 11(2): 125-132.
- Seal, A. and Overton, C. M. 1984. A Comparison of british Library CIP and CIP revised records. *Journal of Librarianship*, 16(3): 199-210.
- Taylor, A. G. and Simpson, C. G. 1986. Accuracy of LC copy: a comparison between copy that began as CIP and other LC cataloging.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30(4): 375-387.
- Thomas, S. E. 1996. Quality in bibliographic control. *Library Trends*, 44(3): 491-505.